

# 관광객 유치 서남권 등 3개축 경쟁

### 전남 '동고서저' 현상 재편 기대 천사대교, 목포근대역사공간 등

올들어 전남 서남권 관광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면서 동부권 중심의 관광객 풀림 현상도 재편이 예상된다.

동부권과 서부권, 내륙권 등 전남 3개 권역이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서 6000만명 관광객 시대가 조기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전남 동부권보다 서부권 방문 관광객 비율이 크게 낮아 이른바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이 뚜렷했다.

하지만 올들어 서남권 랜드마크인 '천사대교'와 국내 최장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 근대역사문화유산 공간, 천혜의 '1004' 섬 등이 엮이면서 관광객 풀림 현상에 재편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올들어 전남 서남권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목포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역시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총연장 3.23km(해상 0.82km, 육상 2.41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7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달산과 다도해, 항구 등 다양한 비경을 조망할 수 있고 해상을 건너는 메인터뷰 높이가 155m로 여느 케이블카에서 느끼지 못하는 스릴감을 선사하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유산 공간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



지난 3일 목포해상케이블카 시승식이 진행됐다. /뉴스시스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4038㎡ 구역은 조선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옛 목포 일본영사관과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옛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아우르는 근대 건축 유산이 자리잡고 있다

올해 연말 개통하는 칠산대교(영광-영암-무안 해제)는 다리 길이만 1820m(사장교 470m, 접속교 1350m)로 대교가 완공되면 서남해안권 관광객 유입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남 서남권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가시화되면서 전남 관광에도 새로운 패턴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수 엑스포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이 열리면서 동부권으로의 관광객 풀림 현상이 컸으나 서남권이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 내륙권 관광활성화

도 도모된다.

전남도는 영산강·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고대 역사문화 자원과 수려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내륙지역을 생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내륙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태 문화관광 개발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남부권(남해안)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소형 마이스산업 육성 ▲내륙관광 활성화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동부권으로 관광객 풀림현상이 있었으나 서남권에 관광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내륙권 관광활성화도 도모되고 있다"면서 "전남은 3개 권역을 중심으로 경쟁과 협력하면서 관광 전남시대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승주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강화군, 농업법인 272개소 운영실태 조사

강화군은 군내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며 주된 사

무소가 강화군에 소재하는 법인 272곳이다. 조사내용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사업범위·농지소유 현황 등이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자료 활용과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박종규 기자 jkpark@



서판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기공식

9일 경기도 성남시 '서판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기공식'에서 (왼쪽부터) 김용 경기도 대변인,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손수미 성남시장 등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 광주 어린이집 투명성 재무회계 대책시급

광주지역 어린이집 대부분이 재무회계 문제로 감사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 5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지도감독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대상 56개 어린이집에서 총 7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지적사항 76건 중 44건이 재무회계 문제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운영 문

제 17건 순이다. 동구의 한 어린이집은 차량을 이용해 현장견학을 실시하면서 차량비 5만원을 지출하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차량과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11건이 적발됐다. 남구의 한 어린이집은 CCTV 자료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았으며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등에 비상연락망과 안전수칙 등을 비치하지 않았다. /광주=차정준 기자

# 광주 경찰, 음주단속 강화

광주경찰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집중 음주단속을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취약지점에서 스폿이동식 불시·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운창호 법의 효과로 올해 9월 6일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2544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추석 5일 연휴 기간에는 1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2017년 10일의 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지난해에는 5일의 추석 연휴 기간, 13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해 40명이 다쳤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서울-광주 간 귀성길은 최대 7시간, 귀경길은 최대 6시간 30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

# 인천시, 천연기념물 일제 점검

인천시가 시 관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식물)과 시 지정 문화재인 기념물(식물)에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천연기념물(식물)과 시 기념물(식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전문가(나무병원) 및 군·구의 협조 하에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천연기념물 제66호 '웅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복한지', 제78호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 제79호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 제304호 '강화볼음도 은행나무', 제315호 '인천 신흥동 회화나무',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시 기념물 제11호 '계산동 은행나무', 제12호 '장수동 은행나무', 제17호 '보문사 향나무' 등 8개소이다.

점검결과 전반적인 생육상태가 양호해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대상은 없었으나, 일부 수목에서 병·해충이 발견



위쪽부터 계산동 은행나무(시 기념물 제11호), 보문사 향나무(시 기념물 제17호), 장수동 은행나무(시 기념물 제12호) /인천시

되어 즉시 조치했다.

또한 기존 외과치료부위 균열 등은 2020년 예산을 반영해 계속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인천시, 추석연휴 응급진료 등 비상진료

인천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및 해외여행, 야외활동 증가로 감염병이 우려됨에 따라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전격 가동,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현황은 총 1,483개소로 응급의료기관 20개소(24시간 운영), 병·의원 494개소(병원 70, 의원 370, 공공의료기관 54)와 휴일지킴이 약국 909개소가 일차

별·시간대별로 당번을 지정하고 지정된 대로 문을 연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확보, 시민안전망 구축 및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로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유사시 119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 시, 군·구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을 급파해 시민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9 | 해질 / 18:49

9월 10일 (화) 음력 : 8월 12일

수도권 날씨 28~2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